

##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해 넘길 듯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결론 안나  
정부·여당의원 "예타 면제 안돼"  
내일 전체회의 이전 마지막 소위  
통과 전망 낮아... 법안 보류 불가피

현정 사상 최대 국회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목잡기에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됐다. 이는 지난 5일 해당 심사소위에서 결렬된지 14일 만이다. 당시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는 안된다'는 정부 입장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도 당초 오전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견이 드러나면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오후에는 다른 법률안 심의를 먼저 진행하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소위 관계자들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임시회 1차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1차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소위가 재소집될 때까지 법안은 보류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오전에 관련 회의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는데 오후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렸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총선 때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과 대구 서대구역을 잇는 총연장 198.8km의 동서간 고속철도다.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며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민주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특히 광주 뿐만 아니라 대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돼 대표 발의자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흐름이 꺾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조 요청을 위해 지난주 정부청사를 찾은 광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타 무력화가 말이 되냐"며 역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이날 소위 논의에서도 기재부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달빛철도 사업에 예타면제를 해줄 경우 지역의 다른 SOC 사업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안책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광주와 대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신속 예타는 최장 24개월(철도 사업)까지 걸리는 예타기간을 9개월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기정 시장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아쉽게 오늘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인 연내 결정이 안되면 내년 1월9일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라도 다시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 조희대 대법원장과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안동범 광주지정법원장 등이 19일 광주법원 종합 청사 별관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나연호 기자

## '18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첫 6개월 휴직급여 대폭 인상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

을 수 있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 밸런스 라인